

디딤소식 ‘겨울’



- 12월4일, 대한결핵협회가 내방하여 디딤센터 전체 이용인을 대상으로 결핵과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왼쪽 사진). 전수조사 결과, 다행히도 양성환자가 없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의 방역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중앙&오른쪽 사진).

“디딤센터의 겨울나기 이모저모”

열체크는 하루 2번씩!



이용인들에게 매일 마스크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12월22일, 동지팥죽으로 식사했어요.
11월부터 온기나눔프로그램으로 거리노숙인에게 나눔가방을 전달해요! ↗
12월, 송년 특식과 선물나눔, 여성일터 종무식으로 한해를 보냅니다. ↘



11월, 소방안전&응급처치교육, 12월, 인권교육 ↗

*디딤센터는?

길거리에서 노숙하거나 찜질방, pc방 같이 집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여성들, 시설이나 병원에서 나와 갈 곳이 없는 여성들,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월세방에서 퇴거하게 된 여성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노숙위기에 있는 여성들처럼 주거가 불안정한 여성들이 응급잠자리, 무료급식, 진료연계, 시설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전용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전화 02-332-5515 /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6길 7 (201호) / 홈페이지 homelessness.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2-905565 (예금주: (사)열린복지디딤센터)

♥노숙여성 이야기 - “임시거처, 고시원의 여성들”



디딤센터는 서울시 사업으로 연간 15명의 여성들에게 한두달의 월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디딤센터 이용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진로상담을 통하여 생활시설로 갈지 독립생활을 할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그럴 때 상당수의 여성들은 자활근로 수입이나 임시주거비 지원금으로 고시원 생활을 택한다.

이용인들이 찾는 고시원은 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의 아주 저렴한 곳이다. 고시원은 독립적으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강점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주거 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하다. 뒤틀보다 아주 협소하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방을 채우고 있다. 보통 밥과 김치 정도가 제공된다. 샤워실과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여성전용 고시원이 아닌 경우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남녀 공용이다.

☞ 지원사례1.

지적장애를 가진 옥이님은 언니의 학대를 견디다 거리로 나온 여성이다. 옥이님의 언니는 옥이님 이름으로 휴대폰을 만들어 요금을 밀리는 바람에 옥이님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 거리노숙을 벗어나기 위해 디딤센터를 이용하던 옥이님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지낼 곳을 찾아야 했고, 장애인시설에 입소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장애인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신분증도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시설 입소 추천도 받아야 했지만 옥이님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주소지도 말소되어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디딤센터는 옥이님이 주민등록을 만들려면 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주거지 확보를 돕도록 임시주거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시원에 입실한 초기, 옥이님은 글씨를 몰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또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자진없어했다. 하지만 반복해서 여러 번 가르쳐주고 연습하는 사이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고시원 이용인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장애인 등록 신청도 하여 신원을 회복하고 장애등록을 할 수 있었다.

장애등급을 받았지만 코로나19로 신규입소가 허용되지 않아 옥이님은 아직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시원에서 옥이님은 이제 다른 이들의 도움만 받던 사람이 아니다. 고시원에 밥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쌀을 씻어 밥을 해 놓기도 한다. 어떻게 했는지 물으면 고시원 사장님이 가르쳐준대로 해 보았다면서 씩스름하게 웃어 보인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카드로 예쁜 셔츠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순대국과 치킨도 사 먹으면서도 돈을 아껴서 사용할 줄 안다.

현재 옥이님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었고, 고시원에서 잠만 잘 수는 없다며 매일 센터에 나와 소일을 하고 있다. 또 주위의 도움으로 한글 공부도 하고 있다.

☞ 지원사례2.

정이님은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 경찰에게 발견되어 디딤센터를 찾게 된 여성이다. 디딤센터에 온 초기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특별자활근로에 참여하였지만 관계의 어려움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만 두었다. 시설을 이용중이던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을 받고 400만원 벌금 대신 유치 노역으로 구치소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구치소생활 3개월을 마치고 갈 곳이 없어 다시 디딤센터에 오게 되었다.

정이님은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과 무기력한 모습이 심해져 수차례 병원진료 권유했지만 끝내 거절했다. 지역사회의 찾동 간호사의 상담도 연결했지만 정서나 생활의 변화는 없었고 종일 누워만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아무 의욕이 없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생활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마땅한 생활시설에 연계할 수도 없었다.

디딤센터 일시보호도 생활시설 연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노숙을 피하도록 도움 방법은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시원에 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고시원으로 독립하는 첫 날 함께 짐을 옮기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신청을 마쳤다. 또 독립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생활용품도 지원했다. 주거급여 자격이 생길 때까지 임시주거비를 지원하다 드디어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주거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통장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에서 생겼다. 아무리 설명하고 호소해도 은행에 갈 수 없다며 은행방문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속, 머릿속에 들어가볼 수 없으니 사실 정확한 거절이유를 알지 못했다. 한달이 넘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마음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간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이님이 하루 빨리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여 기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루 잘 곳이 없어 일상의 평범함을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몇 달간의 주거비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이르는 작은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것, 재노숙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여성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

종 류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여성일터 작업장	공익일자리
개 요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단기일자리 -월 4명의 디딤센터 이용인 참여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자활주거복지센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 사업 -거리노숙 위기의 여성들에게 여성일터와 공익일자리 제공	
참여시간	-하루 5시간, 월 15일	-하루 3시간, 월 20일	
급여수준	-최저시급 적용 -만근시 주차, 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지원	-최저시급 적용 -만근시 주차, 월차수당 지급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지원	
근로내용	-시설청소, 이용인서비스 보조	-여성일터 임가공작업장(포장 등)	-동료지원활동(아웃리치 등)

노숙인 특별자활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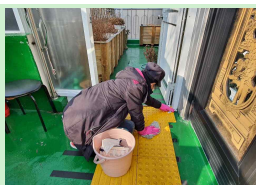
참여자들은 4개층의 시설 곳곳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이용인 식사를 위한 주방일을 보조합니다. 사실 매일 30여분 가까운 분들이 자고, 먹고, 이용하는 공간은 정말 쉬 어질러집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휴일엔 식구들의 식사준비가 어려운데 참여자들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위생관리와 방역이 정말 중요했죠.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하루 두 번씩 소독액으로 청소를 하고 있구요, 지역자활센터의 도움을 받던 이불세탁과 정리일도 코로나로 중단되면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입출입관리 자활근로

특별자활근로는 지침상 3개월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활근로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강도가 높은 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를 삼으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디딤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자활근로가 끝난 후 곧바로 일반 일을 찾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정신건강문제가 있어서 일반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구직을 위한 기능이나 경력이 별로 없어 일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당장 무일푼의 노숙상황에서 교통비나 용돈을 마련할 수 있구요, 또 디딤센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고시원에서 생활하고자 할 때 월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인들에겐 인기가 많습니다. 고시원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더 하게 되고, 일단 고시원을 유지하면 이후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갈 발판이 되죠.



조00님은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던 올 3월에 함께 살던 남성과 사별하고, 일본에서 추방되어 디딤센터에 오신 분입니다. 고국이라고는 하나 낯설기 그지없는 한국에서 연세도 63세가 되었던 조00님은 노숙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짝 마른 몸에 우울증상도 심하여 처음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기운을 조금 차린 뒤 조00님은 일을 하고 싶어했지만, 고령에 경험도 없이 일자리를 찾기는 힘들었지요. 마침 자활근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청소와 소독업무 일자리가 비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00님은 어찌나 시간관념이 없는지(~^^) 그만 하시라고 해야 일을 끝내곤 했습니다. 수심명이 밝고 다니는 노란색 장애인블랙을 날마다 닦는데, 비라도 오면 몇 번이나 닦고 또 닦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3개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조00님은 지역 고시원으로 독립하였고, 출퇴근을 하며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연세가 있어 수급신청도 해 볼만 했지만 한사코,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일을 시작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자원봉사라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고시원비를 마련했고, 주소가 생기고, 핸드폰을 만들어 30년만에 동생들과 연락도 했고 왕래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지만 조00님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일자리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말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조00님은 고시원을 졸업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며칠후면 자활근로 참여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조00님은 다시 노숙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여성노숙인의 공공일자리 참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1. 여성일터 작업장

디딤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프로젝트 사업인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으로 ‘여성일터’를 운영하여 이용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숙여성들에게 임가공작업에 참여하여 거리노숙을 탈피할 경제적 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자들은 하루 3시간씩 주로 쇼핑백포장, 머리끈포장 등 악세서리 포장일을 합니다. 단시간의 수월한 일이어서 건강이 안 좋은 여성들도 참여하기 좋고, 또 일반직장과 다른 편안한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이 서로 어울려 수월한 공동작업을 하다보면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치유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2. 공익일자리

여성일터 공익일자리 참여자들은 주로 동료를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거리 아웃리치 활동에 동행하여 구호물품도 나누고 안부도 확인하고 시설도 안내하는 일, 동료노숙인이 병원이나 관공서에 갈 때 동행하는 일,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의 식사나 생활을 지원하는 일들을 맡고 있죠.



하루 3시간씩 20일을 근무하면 월급여 5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급여로 고시원으로 독립할 주거비를 모으기도 하고, 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고시원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고시원 월세나 식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거리노숙생활을 청산하는 예들이 꽤 많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며 여성일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여성일터 사업에 참여하여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너무 부족한 급여라는 소감이 주를 이뤘답니다.

“좋은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 참여자들과 같이 일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일자리는 너무 좋은데 생활비와 저축을 동시에 하기엔 너무 급여가 부족해요.”

“내년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2020년 11월~12월, 후원품에 감사드립니다!!

🍀 10월27일~12월28일, 후원물품 내역

프리메드(응급키트 50개), (주)씨에이치엘코리아(생리대 9팩), 햇살보금자리(에센스 등 화장품 102개), 전국노숙인시설협회(마늘비타민 240팩), 새브란스노사협의회(쌀 100킬로, 김치100킬로), 영등포보현의집종합지원센터(여성의류 27개), 천제인(운동화 7개), 수협연희동지점(컵라면 60개), 서울노숙인시설협회(치약 166개, 칫솔 35개, 겨울상의 85개, 하의 50개, 신발 3개, 비타민 60개, 마스크 400개, 핫팩 800개), 파리바게트연남점(빵 20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속옷 2상자), 서대문구50+센터(수제마스크세트 100개), 두손교회(신발 3박스), (이상 물품 후원일 순서)



-> 왼쪽부터 서대문구50+센터의 수제마스크 세트, 두손교회의 신발 3상자, 인근 빵집의 빵 후원품입니다!

🍀 SNS 알림을 통해 의류와 생필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10월27일~12월28일)

박지혜, 임혜진, 김미희, 김연진, 김하나, 한*름, 이*연, 허*현, 김*경, 정고운, 박선영, 무기명, 정*연, 허운정, 김수련, 홍수민, 이영희, 김유리, 김주원, 장소라, 백현경, 김현영, 김주원, 심*영, 이*희, 김선미, 김민선, 오운진, 임태경, 조성희, 김희재, 장유준, 최서희, 이*영, 이솔내, 송영신, 백유진, 김진희, 김민희, 배송의, 박*영, 최*수, 한미영, 김보연, 우성실, 씨에이치엘코리아, 박영희, 김도희, 김한별, 박혜림, 하민지, 이*은, 권순택(탐탐), 김*연, 김가영, 강혜원, 전수혜, 김은채, 박지혜, 박수진, 윤*민, 김다은, 김희재, 전은정, 박자명, 홍*희, 홍수민, 황선재, 범은경, 안은정, VMT, 강지현, 김*정, 한이정, 김진아, 류건욱, 손*연, 김지희 (이상, 물품 수령일 순서)

👉 지난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sns를 통해 여성홈리스의 소식을 접한 분들이 보내주신 중고의류와 각종 생필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편지글, 겨울까지 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겉옷, 속옷, 양말, 위생용품, 각종 차와 영양보조제, 기타 먹거리, 그리고 목욕용품과 화장품들...

날은 점점 매서워지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은 덜 추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 각종 개인 후원품을 모아 구성한 화장품 패키지

👉 9월 이후 현재까지 홈리스여성을 생각하며 의류&생필품나눔을 실천해 주신 분들이 300여명이 넘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각종 화장품과 목욕용품들을 선물나눔 패키지로 구성해 이용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넘치는 정성들로 자신에게 꼭맞는 겨울옷을 고르고, 요긴한 생필품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이용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풍성한 한 가지 보내드립니다.
 몸 마음 따스하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며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희망 잃지 마시고,
 건강과는 늘 가까이 희망이 다가옵니다.

보냅니다. 새봄은 아니지만
 꽃샘이 되다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따뜻하게 보내
 시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추운 겨울입니다
 약속처럼 열개 보냅니다. 아예 핸드크림이
 차를 보관해 있는데 아예라도 주머니에 넣어
 두어서 이젠은 생활로 보냅니다. 건조한 겨울
 나이가 잘 바래요. 그라데 카라멜과 약간
 당배를 같이 보냅니다. 기도에 맞가는 모직이지만
 역시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내는 브러쉬가 2개는 한 세트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기류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보낼 수 있는 재능기부 같은 것에 같이 보냅니다!
 편지를 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올해 처음 디딤센터에 맡기 되었는데,
 약게 타기 다들인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옷들이 작게라도 부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은 유독 더 추운 겨울
 뉴스보고 다음 한 구역이 쓸쓸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여성 노인분들 그리고 대명센터 관계자분들
 의 남은 한해가 따뜻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남은 한해, 그리고 다가올
 2021년은 행운이 가득하길!

안녕하세요! 2대 AK 수영장에서 보냅니다!
 저희는 플로리다에 수영장 대학생을 매일 보내요. 많은 노숙자분들을
 도와드립니다. 그중 절반은 몇 인도는 소수의 여성 노숙자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편지 안왔어요. 윙크를 보여 슬픔을 보이거나 고통을 지르며
 몸서리칠 것을 보면, 잠깐 지나가는 우리도 깜짝 놀라고 웃어줍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걱정되기도 했어요. 보금자리가 있는데 여성으로
 살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이라요..
 저희의 마음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겠습니다!
 아쉽고 힘든 이시기 잘 견뎌주세요 ^.^!!

의류는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여
 준비해왔습니다.
 의류들은 내년 봄이 지날 때 조금
 다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자원봉사도 해보고 싶네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 개인후원물품과 함께 온 편지들 중

♥2020년 11월~12월,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0월27일~12월28일, 후원금 내역

☺개인후원자 - 정소담, 무명1, 정현주, 하유림, 정시원, 류봄, 박묘정, 정희정, 이수연, 이소희, 여시맏달,
 맛있는계절, 신화영, 이영미, 힘내세요, 김선주, 도은영, 윤재형, 유종일, 박창식, 이애신, 이우용, 조성희,
 박소정, 현미자, 김윤호, 정수진, 유수경, 정해치, 이경희, 김철선, 신지이, 이지민, 노혜지, 홍예슬, 정주현,
 김선숙 등. 총 2,141,609원

☞ 개인후원금은 이용인의 노숙 탈피를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디딤센터 이용인의 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 2만원, 12월에는 디딤센터
 이용인의 탈노숙을 위한 서비스 활동을 지원하는 교통비 4만원, 노숙인 인식개선과 디딤센터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용 40여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지정후원금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600,000원

☞ 디딤센터는 11월부터~다음해2월까지 동절기침터를 운영합니다. 모금회의 지원금은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디딤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내방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감염위험이 작아져 활동이 가능할 때 '자원봉사 포털사이트 1365'에 공지하겠습니다.